

◎ 일, 플루터말연료 재처리연구

일본의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은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플루터말계획에 따라 플루토늄을 일반 경수로발전로의 연료(MOX)로 사용한 뒤 생기는 핵연료의 재처리기술개발에 곧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쿄(東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바라기(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의 재처리공장설비를 이용해서 통상의 우라늄연료와 동양하게 재처리되는 나를 가려보기 위한 실험에 착수하는 것이다. 통산성이나 전력회사는 90년대 말부터 일반 원자로에 플루터말을 사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핵연료를 유효하게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재처리연구를 본격화한다고 강조했다. 플루터말이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혼합산화물(MOX)연료로써 연소 뒤의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는 플루토늄 양은 통상 우라늄연료에 비해 수배 많다고 한다. 재처리는 사용후 MOX연료를 일단 녹여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에서는 신형전환로(ATR)의 원형로인 「후겐」(16만5천kw—후쿠이현 스루가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 러, 지진예측에 점성술 활용

러시아 정부의 긴급사태부긴급사태예측센터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재해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점성술사, 초능력자, 점술사 등의 예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도 점성술로 케네디대통령의 암살을 예언한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 김일성의 사망일자를 어떤 무당이 적중시켰다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초능력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온 나라인 만큼 여러 가지 조사데이터도 풍부히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쇼이그긴급사태부장관은 “우리들은 점성술사의 예언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5년동안에만도 많은 예언이 적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점성술사의 예언

의 적중률은 아직은 5퍼센트에 불과하나 지진발생 예측의 경우 날짜나 장소는 적중해도 진도가 틀리는 일이 있음을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러시아에서는 작년에 약 2천건의 긴급사태가 발생했는데 긴급사태부는 그와 동수의 구조활동을 전개해서 약 4천8백40명의 인명을 구해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점성술사 등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 일, 「2000년문제」대책에 1조에 투입

추리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 오늘날의 컴퓨터는 한번 프로그램에 입력시킨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치의 융통성도 발휘를 못한다. 일본 정보산업계가 최근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융통성이 없는 컴퓨터가 서력(西曆)을 잘못 알고 「오동작하게 될 2000년문제」.

90년대 이전에 개발된 컴퓨터 소프트는 해(年)를 다룰 때 서력의 아래 두계단 즉 1989년이면 89년만을 다루는 것이 보통이었다. 2000년이 되어 00으로 표현되는 연도는 1900년으로 오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2000년 이후의 제품 수주나 발주, 열차·항공좌석 예약 등에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서게 된 것. 미국에서는 시판하는 소프트로 시스템을 구성하므로 소프트사가 개정판을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배포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기업이나 관청이 특수한 소프트를 쓰는 일이 많아 사용자마다 대응해야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청이나 대기업은 벌써 몇년 전부터 이 문제처리에 신경을 써왔지만 2000년을 3년 앞으로 맞게된 이 시점에서 대책을 완전히 끝낸 곳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에 이르러서는 손도 못댄 곳이 거의 전부일 정도이기 때문에 통산성이 96년 12월에 정보산업 업계단체 등과 2000년문제 검토회를 발족시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계몽을 하는 한편 중소기업청도 강습소 개설 등 계몽과 정보제공에 나섰다. 카드회사 같은데서는 3~5년이었던 유효기간

을 2년으로 단축시키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최대규모라는 JR(일본철도)의 녹색창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철도정보시스템을 97년부터 수정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 작업에 도합 1조엔이 든다 해서 후지쓰, 일본 IBM, 등이 수주경쟁에 나서고 있다.

● 中, CO₂의 1인당 배출량 삭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CO₂배출에 있어 세계 2대국인 미국과 중국간에 총배출량 삭감이나, 1명당 배출량 삭감이나로 싸움이 붙었다. 92년도 현재 미국은 CO₂의 세계 총배출량(92년, 약 61억톤)의 24.6%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11.4%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중국은 미국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의 환경문제연구기관인 「월드·워치」의 레스터 브라운소장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지구환경악화를 가져온다고 경고한 일이 있다. 이에 대해서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의 장곤민(張坤民)부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은 총량규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1명당 배출량을 삭감시키면 총량도 감소된다. 같은 지구상에 살면서 선진국의 허용총량이 많고 발전도상국의 그것은 적다는 것은 이상하다. 따라서 1명당 배출량으로 판단할 일이다.”라고 역설했다. 중국의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도 중국환경위협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브라운소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중국의 1명당 배출량은 미국의 10분의 1 정도라 하나 총배출량은 2010년까지 연간 4%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일, HIV감염자를 장애자로 인정

일본 후생성은 최근 면역기능이 떨어진 HIV(에이즈바이러스)감염자를 신체장애자복지법상의 장애자로 인정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HIV의료의 전문가, 신체장애자복지심의회의 위원에 의한 검토팀을 3월까지 구성하여 구체적인 기준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약속을 후생성으로부터 얻어낸 히가시오사카(東大阪)HIV소송원고 변호단은 “이제까지 나라는 감염자를 관리대상으로 삼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복지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획기적인 전기다.”라고 발표했다. 신체장애자복지법은 시청각이나 수족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 심장, 신장, 호흡기 등의 질병에 대해서도 「(장애자가) 연속적으로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을 받을」경우에는 장애자수첩을 교부하고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정하고 있다. 현재의 인정대상자는 약 3백만명. HIV에 감염되면 서서히 면역력이 저하되어가다가 끝내 에이즈를 발증한다. 후생성은 에이즈환자에게서 실명 등 구체적인 증상이 나올 때 등 개별적으로 장애자로 판정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금후엔 「면역기능장애」를 동법상의 장애구분으로 자리매김하여 구체적 증상이 없어도 면역이 떨어진 시점에서 인정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 성 접촉에 의한 감염 등 감염경로는 묻지 않는다고 한다.

원고변호인단은 신체장애자 인정에 대해서 면역력을 나타내는 「CD₄」의 값이 200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장애등급 2급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日, 6월에 아세아정보지 창간

오는 6월에 일본에서 창간되는 아세아정보지 「월간 아시아(아세아)」에 대해서 우리의 산업계가 관심을 갖는게 좋을 듯하다. 일본의 미디어관련업체인 H&I, 간키출판, 국제회계사무소인 미국의 아더·안더센, 미츠비시(三菱)종합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그 잡지를 기획, 출판한다고 한다.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일본기업의 경영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의 비즈니스에 조준을 맞춘 리포트, 특집, 연재기사 등을 게재한다고 한다. 각지의 금융시장 쟁탈전, 대두하는 인도경제, 중국의 식량문제 등이 다루어지며 물론 우리나라 비즈니스계도 취재대상이 될 것이다.

각사에서 파견된 약 10명의 편집자들로 창간팀을 이미 발족시켰다. ⑤7